

기도밖에 없었어요

충현교회 중보기도부

축복의 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규삼 목사



찰스 스필전 목사는 “중보기도의 정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고자 애쓰는 중보기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며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는 이 책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 18:20) 또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행 12:5)” 따라서 교회 안에 중보기도가 활성화될 때 교회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중보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충현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석 장로/ 당회서기

중보기도 감사책을 발간함에 이르러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중보기도부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기도부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많은 기도 용사들은 배출하며 기도의 지경을 확장 시켜 왔습니다. 이 책은 열정 있는 두 분의 교역자와 부장님을 비롯한 일꾼들과 헌신자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교회의 영적 건인자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기도부의 '기도 밖에 없었어요.'를 읽음으로써 충현의 온 성도들이 응답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성호 장로/ 중보기도부장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며 2018년부터의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정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동진 목사/ 예배위원회

"기도밖에 없었어요" 출간을 축하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준식 목사/ 중보기도부 지도

주님의 몸된 충현교회의 심장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자들의 헌신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책을 통하여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날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헌신자들의 기도 소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하여 함께 하는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 안에 이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정양선 목사/ 중보기도부 지도 역임, 現 동현교회 목사

살롬! 충현교회 중보기도부 “기도밖에 없었어요” 감사책 출판에 앞서 감사와 축하의 글을 쓰게 되어 즐겁습니다. 충현교회 중보기도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비전을 기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체계적인 중보기도사역, 예배기도단사역, 소그룹, 중보기도실운영 등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충현교회 선교에서 처음으로 기도선교까지 감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을 5년 전 처음 시작하여 뿌리를 내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현교회 중보기도부가 다양한 환경과 필요를 위한 전략적인 중보기도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행 12:5)

목 차

축복의 글 .2

I. 간증문

1. 섬김이 간증문 .8
2. 기도 헌신자 간증문 .22
3. 예배기도단 섬김 간증문 .37

II. 수료 소감문

1.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 .44
2. 자녀기도 훈련 소감문 .73

III. 응답감사문

1. 한줄 감사 .89
2. 응답감사문 .99
3. 중보기도실 이전 감사 .115

IV. 느헤미야 선교 .119

썬은이의 글 .144



I. 간증문

1. 섬김이 간증문

홍명주 전도사

설레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부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 6개월로 접어드니 다시금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중보기도부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부서입니다. 중보기도를 실천함은 예수님의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기도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요청카드의 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

도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벌떡 일어나며, 꼬인 재정문제가 꿈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았을 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차장 황경분 권사 (2교구)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에 중보기도부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나를 중보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충현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라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뤄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보았다

중보기도 훈련 1기생을 모집할 때, 노파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많은 성도가 지원했고 모두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중보기도 걱정하는 시간을 서로 차지하려고 뛰어가서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려는 열심을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았다.

중보기도는 시작이 되고

중보기도 헌신자들은 말한다. 성도들의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함에 넣은 카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 오히려 본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동안은 본인만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신다. 그리고 막상 본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중보기도자들이 본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든든했다고 고백을 한다.

이웃 사랑의 기도처

이웃에 사시는 타교인들이 평일에 기도하러 오시고 또 이웃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하러 오신다. 그리고 어떤 연인들은 손잡고 와서 따로 개인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함께 돌아간다. 그들이 이곳에 기도할 곳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때 가슴이 벅차고 기쁘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기도단의 기도자들은 본당 예배 순서에 맞추어 기도한다. 바쁜 주일인데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배기도단에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아직은 빈자리가 많지만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아직은 미약하지만 힘을 얻고 열심을 낼 수가 있다.

4회 헌신자의 날

모든 것이 은혜, 은혜의 날이었다. 코로나로 닫혔던 중보 기도실이 회복되었기에 더욱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제목을 올린 성도들의 기도카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기에, 응답받았을 때 나의 일처럼 기뻐하는 중보기도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간증자들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요청자들이 그간 고통을 함께 느끼며 기도하였기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토요섬김이 이미지 권사 (3교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의 죄인인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웃을 위한 기도로, 기도실 섬김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험하고 힘든 절망의 순간들을 이기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와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서 영역을 넓혀 주 안에서 형제인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늘 우리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셨던 어머니의 기도! 저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어느 권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려 합니다.

저의 사역은 기도실 섬김이로, 시작 30분 전에 나와 기도실 청소와 정리정돈을 마치고 잔잔한 음향으로 쾌적하고 은혜로운 환경을 조성하며 기도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기도헌신자들은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단체방에 올라오는 기도요청카드를 모아 기도하고 있으며, 이 때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긴 시일 응답받지 못한 안타까운 기도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른도 감당키 힘든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 겪는 어린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심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며 그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려옵니다. 하루속히 응답 주시기 원하며 응답받는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임을 알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4)’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힘써 기도의 승리가 이웃을 변화시키며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

화시키는 기도의 불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충성된 종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토요섬김이 손선례 권사 (9교구)

‘은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젖어 있던 나는 중보기도부를 통해 다시 기회를 얻었다.

중보기도 훈련과 섬김을 통해 믿음 앞에 열심을 주셨고 감사와 기도로 매일 매일 헌신하시는 분들의 순종을 바라보며, 또한 나의 부족함을 보았다.

간절한 긴급기도의 응답을 통해 매 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

화요반장 안화순 권사 (2교구)

광야같은 인생길을 달리다가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카드를 붙잡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받은 응답에 감사해서 환한 얼굴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봅니다.

금요섬김이 이연화 권사 (10교구)

제자훈련을 할까 아니면 중보기도 훈련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권사회에서 권사님들이 모여 중보기도를 하었는데 그 때부터 중보기도 사역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보기도회 참석 횟수를 거듭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났다.

마침내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하였는데 새해가 되면서부터 성금요일 찬양연습과 중보기도 훈련으로 인해 주일에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주일에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서 교회에 오면 밤 9시 정도가 되어서야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결국 주님은 훈련과정을 마치게 하셨다.

‘중보기도 사역훈련’을 마치고 4시간씩 하는 요일섬김이로 드리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만 그 시간에 중보기도 하는 아름다운 권사님들을 만나고 또 개인기도하는 보물같은 우리 교회 및 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곳 역삼동으로 옮기게 되어 예배시간을 알아보러 온 청년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 좋았다. 또 기도하고 나오시는 중보기도자들의 손에 사탕과 초콜릿을 손에 쥐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우리교회 담임목사님을 비롯 모든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긴급

기도카드, 일반기도카드 및 응답카드를 보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중보기도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

1회 헌신자의 날 월요섬김이 이윤의 권사 (1교구)

권사라는 직함 앞에 은퇴라는 신분 용어를 단 지 4년이 지났다. 은퇴 권사라는 이름을 앞에 놓고, 나는 시무 권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런 되돌아봄의 행위를 감히 ‘회개’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나의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고치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뗄 수 없는 부속물처럼 내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나를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은밀한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을 자가 될 삶을 살아야되지 않을까하는 각성과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몰려 왔다.

한규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어수선하던 교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활동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있음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 중에 나는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훈련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의 중보기도의 범위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몇몇 지인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것도 매우 형식적인 읍조림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정병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목숨바칠 각오로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선지자들의 모습, 멸망시켜야 할 성 중에 한사람이라도 중보기도자가 나타나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사탄의 침략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본을 보이시고 명하시는 예수님을 중보교육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

나는 칠십이 훌쩍 넘은 나 자신의 그간의 초라했던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처음 믿을 때에 회개하고 뜨겁게 만났던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너무 오래 떠나있었음을 깨달았고, 이 교육기간은 예수님에 대한 내 첫사랑의 회복기간이 되었다.

훈련 후 내가 맡은 사역은 월요일 오후 중보기도 섬김이다. 중보기도 시간을 릴레이로 담당하며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자와 개인기도실 이용하시는 기도자들을 돕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내 건망증 때문에 종종 일의 순서를 바꾸거나 빼먹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개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보기도 섬김이 기도모임에 잘 나가지 못해 안타깝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집회 후 중보기도 섬김이 기도모임이 정양선 담당목사님의 집례로 진행되었고, 참석자들 모두 뜨겁게 기도하였다. 나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 중보기도자 모임을 통하여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되고, 나 자신이 주님의 원하시는 중보기도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수요섬김이 장업선 권사 (4교구)

나는 중보기도 훈련을 마치고 요일섬김이로 헌신하고 있다. 구원, 건강, 경제, 자녀, 가정,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삶에 지쳐 영적투쟁을 하며 내놓은 문제들을 두고 중보기도부에서 계속 기도해주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다.

총무 김하경 권사 (2교구)

중보기도부가 생기면서 4기 교육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서기로서 행정과 실무를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회에서 처음 중보기도부를 만들었을 때,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 저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 심정을 얼마나 잘 알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정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과연 솔직하게 기도요청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회에서 정한 일인 이상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면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 임원들은 중보기도부를 중요한 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구촌 교회에 견학을 가서 운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또, 많은 자료를 구했다. 교역자들과 임원 몇몇은 2박 3일 훈련에도 참석하는 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해야하는 모든 것들이 많고 낯설어 무척 힘들었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중보기도부가 꼭 필요한 부서임을 점차 알게 되었으며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시작되고 접수된 중보기도 요청카드를 장부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나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요청의 신청자나 대상자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이상으로 다가오며 어느새 그들의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닌 내 기도제목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 같은 자가 중보기도사역에 쓰임받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매일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의 모습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오히려 자신이 기도요청을 하고 쉬어야 할 형편임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뜨겁게 울며 기도하셨는지 눈이 툭툭 붓고 온몸에 힘이 빠져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분, 또한 눈물을 닦느라 얼굴에 휴지 조각이 묻은 것

도 모른 채 나오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마다 중보기도 사역이 진실로 귀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또 교회에
5대 목표 중 ‘이웃 사랑’을 주셨는데, 서로 진심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함께 기뻐
하며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
도로 알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이 사랑이
온 교회에 흘러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중보기도로 인한 사
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도요청 카드는 3개월, 긴급 기도요청 카
드는 1개월을 주기로 체크하여 날짜가 지난 것은 교체하는
데 (일주일에 약 20~40장정도), 일일이 전화로 기도응답
여부와 날짜 마감으로 카드가 빠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작업 또한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통화 중에 기
도 신청하신 분들이 감사를 표하시며 “너무너무 수고한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민망하고 감사하여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매주 수요일예배를 마친 후 지
도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회와 회의를 하며 중보기
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기도자로, 또 섬김이로, 헌신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회 헌신자의 날 금요반장 구영희 권사 (10교구)

귀한 헌신자의 날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6개월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18년 중보기도부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누린 한 사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부가 구성되면서 중보기도부를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생긴 부서였고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 이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훈련을 받고 또 섬기게 되면서 중보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 사역을 통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기도제목을 올린 분들의 아픔과 그들이 처한 상황, 또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맘이 내게도 전달되어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습니다. 또 어느 기도제목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이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감사카드, 응답카드를 통해 불가능할 것 같던 상황에서 회복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들의 기쁨 또한 저의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나의 아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세밀하게 돌봐주셨던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때의 심정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었고,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구원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가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세상은 멈춘 것 같았지만 중보기도는 계속되었고 대면으로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중보기도 훈련은 또 새로운 은혜와 결단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기도방을 통해 수시로 올라오는 긴급기도제목은 제가 작성한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금요일엔 하나하나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 내용을 아뢰니다. 어느 기도제목은 1년, 2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 때 모세의 손을 받쳐줬던 아론과 훌처럼, 가족들이 지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때론 환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소천 소식을 듣게 되는데, 특히 젊은이들의 소천 소식은 많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과

정으로 가족이 더욱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 새로운 중보기도실로 이전하였는데 교회의 여러 여건으로 비록 장소가 넓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뿐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며 곤고한 자들이 편하게 찾아와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중보기도부에서의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은퇴를 하면 실무행정의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속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골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기도헌신자 간증문

1회 헌신자의 날 최연희 집사 (11교구)

충현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자녀들의 유학으로 9년 만에 귀국하여 역삼동에 집을 얻고 주말에 개인기도를 하기 위해 가까운 곳의 교회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충현교회까지 왔는데 경비 집사님의 따뜻한 안내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확신으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해외 한인교회에서 저를 훈련 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은 중보기도사역을 통해서였습니다. 6년간의 귀한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습니다. 충현교회 1기 중보기도 훈련과정을 기쁘게 수료하고 중보기도 사역 헌신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써서 낸 중보기도카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난 후, 몇 주 후에 응답카드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게 됩니다. 순모임에 가서도 갈급한 기도제목이 있는 A성도님에게 중보기도카드를 작성하여 내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2주 후에 그분이 응답을 받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하시고 순모임에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중보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놓고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로서 유교와 불교를 신봉하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로하시지만 건강을 잘 챙기셨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간절하게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놓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긴급카드를 작성하여 중보기도실에 내고, 1주일에 하루 병문안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과 영생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어머니께서 기쁜 마음으로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모시고 5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경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제는 친정어머니하고 하나님 애기를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소통 관계가 이루어져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중보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과 은혜를 중보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눠주시는 사역이며, 성도라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에 2기 중보기도 훈련을 충현의 모든 성도님께서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나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방에서 일하십니다.**

1기 윤미영 권사 (5교구)

8주간의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기도의 전략과 실례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빚으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어서 중보기도로 헌신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중보기도자, 기도대상자와 기도요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현장을 보았다. 교회적으로 중보기도부에 긴급으로 기도요청을 받았던 A 어린이의 사례는 그 아이가 회복되는 소식이 내 일처럼 감사하고 기쁨에서 중보기도자가 받은 은혜라 생각된다.

1기 조복순 권사 (3교구)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중보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몸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기 신정숙A 권사 (8교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

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9-20)'

먼저 부족한 저를 중보기도 사역자로 부르셔서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기 교육을 받고 시작할 때에는 매주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1차에 이어 2차까지 일 년을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카드에 적힌 각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기도할 때면 성도님들의 각 기도 제목들이 그분들만의 사연이 아닌 나와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의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성령 안에 그분들의 힘든 마음을 조급이나마 함께 나누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루속히 기도 제목들이 응답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실에서의 1시간은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1분, 1초의 시간까지 소중했습니다. 가끔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다는 사연을 받을 때는 정말 내 일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기도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각 가정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그들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치료해주시는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현장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했던 병들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1기 유미향 집사 (12교구)

2회 헌신자의 날에 참석하였다. 중보기도, 예배기도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지체들이 모여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중보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을 고백하는 축복의 선편이고 나아감 이기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인지 모른다. 응답의 위로에 감사하고 기다리게 하시면 더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처럼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응답이라.

예배기도단의 기도로 주일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고 중보 기도로 성도의 삶에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헌신의 기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자신이기를 소망해보자.

헌신자라는 이름이 몽클하게 느껴진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우리 모두 헌신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마음을 모은다. 주님 내가 사는 동안 기도의 헌신자로서 서게 하옵소서. 아멘!

2회 헌신자의 날 2기 신상철 안수집사 (10교구)

제자훈련 방학 중에 중보기도훈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 훈련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에 중보기도훈련 2기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작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제자의 도(道)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할 만큼의 영적 수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신청하게 된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며 성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매주 1시간 동안 드리는 중보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올라오는 중보기도카드에는 본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 열방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 사고, 경제적 환란, 자녀의 방황, 부부의 갈등,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먹먹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답답함과 애통함에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감사와 안도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심령이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요 17:11~15)’ 중보하시는 예수님처럼, 저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 5:16)’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막 11:24)’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제 안에 은혜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립니다.

저의 중보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호흡하는

그 날까지 가정, 교회, 민족, 열방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할 때,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중보기도의 훈련과 증거로 개인의 신앙만을 지키는 파수꾼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증거자로 믿음이 확장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2회 헌신자의 날, 식탁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5)”

1기 박경혜 권사 (2교구)

1기 중보기도 사역을 하며 여러 아픔 때문에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기도요청에 정성으로 기도하는 헌신자들을 보고 나를 돌아켜보고 이기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제목이 있어도,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중보기도 카드 작성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회 헌신자의 날 3기 조영란 권사 (4교구)

평소 중보기도사역이란 말을 생소하게 느꼈던 나는 이미 1기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던 언니로부터, 그동안의 은혜로운 체험과 권유의 말을 듣고 나는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사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평소에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적잖은 부담이었기에 주저하였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 함께 힘을 얻도록 신실한 짝꿍 권사님도 같이 사역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하는 것은 분명 아닌 듯했습니다.

중보기도 3기로 시작한 나는 훈련의 과정부터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다시금 깊이 잠자던 영혼의 간구가 나의 심령을 통해 나오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중보기도 첫 시간이 되어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연약함과 소심함이 여전히 나를 주눅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과 확신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의외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함으로 차분히 기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었고 부족하지만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뻝합니다.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항상 감사와 소망으로 그 시간에 임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진리의 법칙을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작은 가지이지만 합당한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5회 헌신자의 날 3기 김재순 권사 (7교구)

2018년 12월에 권사은퇴를 하면서 그동안 섬기는 일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뭔가 허전함이 생기면서 평생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중보기도훈련 광고를 듣게 되었고 바로 3기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중보기도자로 헌신할 엄두도 못 내었는데 헌신자의 날에 참석하면서 헌신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좋지 않아 중보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 장영환 집사가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되더니 지금은 누워지내는 환자가 되어 늘 옆에서 돌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매일 요양보호사가 3시간 돌봐주고 있는 시간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오는 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올 때 2시간, 1시간 기도하고 집으로 갈 때 2시간 평균 5시간을 드려야 중보기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이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하여 기도하다 보니 지금 9차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요청카드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

다. 너무도 마음 아픈 기도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의 주인이요, 응답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읽듯이 기도합니다.

가끔 응답감사 내용이 기도방에 올라오면 제가 더 기뻐합니다. 기도요청자와 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른 분들은 1시간 중보기도를 1시간만 하는 기도라 여기지만 부족한 저는 5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됨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1기 정연희 권사 (3교구)

일주일에 한 시간씩 중보기도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가서 한 시간 기도한 후 다음 성도에게 바통을 넘기고 훌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다. 처음엔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 시간의 의미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 한 시간은 나를 중보의 심연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다. 도화선에 불씨가 점화된 후부터 기도실에서

본 중보 요청카드가 불쑥불쑥 일상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그 횃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거나 혹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중보기도를 한다. 기도할수록 중보기도 서약이 자꾸자꾸 기도의 축수를 건드린다. 기도하라는 요청이 임하는 순간 나는 마음에 저장된 중보 요청카드를 뽑는다. 잠자리에 누워서, 밥을 먹으며, 길을 가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 2:4)’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묵도한다.

기도를 요청하는 삶들은 애절하기 그지없다. 처음에는 카드를 보면서 음성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카드를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음성 언어로 감당하기에 벅찬 삶들을 만난다. 너무 아픈 삶들 앞에서는 가슴이 먹먹하여 기도가 막히기 일쑤다. 결국, 음성 언어의 한계에 이르고 만다. 나는 주께 질문한다.

“언어가 고갈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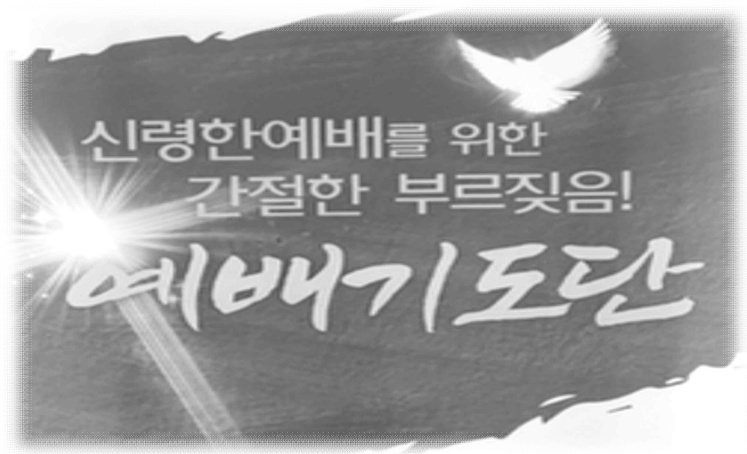
다행히 주님이 답을 주셨다.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도 방편은 눈물 언어다. 어찌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눈물을 통과한 중보를 받고자 하시는 걸까? 눈물 언어로 중보기도 한 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 영혼의 정화다.

중보기도자로서 알게 된 것은 내 삶과 교우들의 삶이 유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내 삶은 교우들의 삶과 바로 연결된다. 하나님은 나와 교우들과 연결된 그 합을 붙들고 계신다. 이 합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나의 삶의 궤적이 중보기도에 깊이 사용됨을 깨닫는다. 환

우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의 아픔이 떠올랐고 잉태를 원하는 간곡한 요청에는 생명을 위해 지인이 감내했던 기나긴 인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재정문제 해결을 구하는 요청에는 수입의 단절로 막막하던 허기의 경험이 적용되었고 내적 치유를 기도할 때는 피눈물로 흥건하던 나의 상처를 보며 요청자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었다. 내 삶이 총합이 모두 중보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깨달음에 나는 전율했다.

중보기도실에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묶어놓은 두툼한 중보 요청카드가 있다. 절박한 심정을 카드에 또박또박 기록하였을 기도요청자들을 생각하면 한 장 한 장 카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가벼운 카드는 단 한 장도 없다.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천 근이다. 이 중한 사명을 감당하자면 나는 단단한 기도자가 되어야겠기에 스스로 단련한다.

기도요청 카드는 중보기도실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 카드가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다. 그곳은 내 마음이다. 내 손에 기도 카드를 지참하지는 않았지만, 기도 카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보관되어 있다. 나는 기도 카드의 내용을 상당 부분 기억한다. 심지어 어떤 카드는 필체까지도 기억한다. 내 마음에 저장된 카드는 수시로 내게 기도하라고 명한다. 나는 기도하라는 내적 음성을 들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중보기도자로서 나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한다.



3. 예배기도단 섬김 간증문

1회 헌신자의 날 한홍연 장로

예배기도단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은 순결한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에 대한 기도와 찬양대와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설교하시는 한규삼 목사님을 위하여 통성으로 한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이제 2기 중보기도 사역자들에 대한 모집과 훈련이 시작된다. 많은 기도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순결

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열정 있는 전도자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기도드린다.

3회 헌신자의 날 이순희 타교 사모 (11교구)

남편은 대구에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남편은 은퇴하면 충현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회자들은 은퇴 후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을 한다길래 저는 남편이 서울에 간다고 했던 말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남편은 대구에서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마침 딸이 역삼동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남편이 서울에 가서 아이와 함께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충현교회에 오게 되니 정말 남편의 평소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 28일에 충현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새가족 공동체 새순 모임에 참석해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개인기도실에 드나들며 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간충현지에 중보기도 3기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망설이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 1, 2월 두

달 동안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고 기도는 지혜의 꽃이라’라는 강의를 들었을 때 기도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 3월 첫 주부터 4부 예배 기도단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장로님 인도로 예배순서 따라 기도를 하면서 주일 기도시간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의 영육이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 위로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며 은혜로운 말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열심히 예배기도단에 참석하면서 저 역시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기도단에서 1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 뿐인데 저희 개인적 기도제목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큰 기도제목도,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정문제도,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까지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40년 넘게 피부질환으로 고통받았던 질병도 예배기도단에서 기도하는 동안 치유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시심을 중보기도단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기도단에 동참하여 받은 이러한 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이 성도님들께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4회 헌신자의 날 송복임 권사 (1교구)

할렐루야! 예배기도단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부 예배기도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 15분 전 찬양부터 기도를 인도하는 집사님을 따라 전체 예배의 순서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립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는 시간이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결한 예배를 위한 예배기도단의 기도사역은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 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는 저에게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다. 예배기도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4회 헌신자의 날 이남숙 권사 (7교구)

저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신령한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전보다 집중하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속으로 울컥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일을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대로 기도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4회 헌신자의 날 송순기 권사 (9교구)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예배 기도단에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예배기도단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예배기도단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회 헌신자의 날 예배기도단 인도자 김종홍 장로 (6교구)

우리 교회에서는 신령한 예배를 교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기도단에서는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기도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기도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기도단에 관심 어린 참여를 권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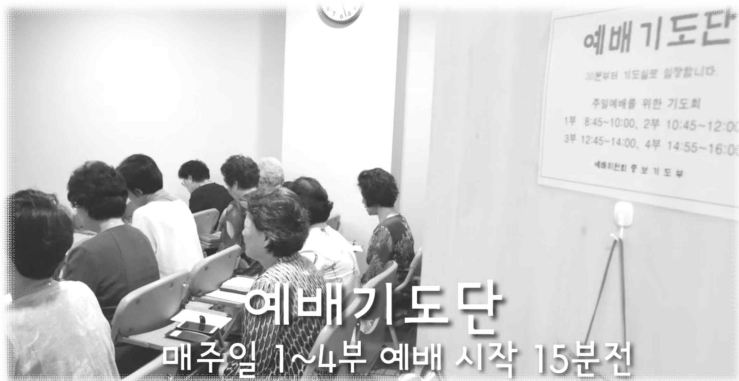
5회 헌신자의 날 차장 김원철 안수집사 (7교구)

저는 중보기도부의 예배기도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중보기도부가 생기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말씀 전하시는 담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받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 예배기도단에서는 본당에서 진행되는 1시간 예배를 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뿐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그 시간까지 올려드립니다. 사회자 목사님, 신양고백, 장로님의 대표기도, 헌금시간, 찬양대 찬양, 설교시간에는 전하는 담임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성도들과 음향 등 본당의 분위기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훈련을 하다 보니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예배 과정이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있어서 예배를 위해 2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당

에서 1시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1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깊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기도단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으로, 중보기도학교 수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Ⅱ. 수료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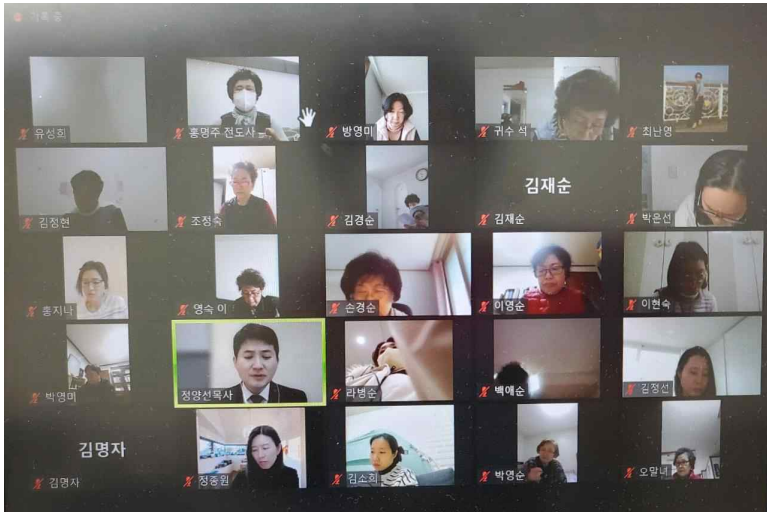


1. 중보기도훈련 수료소감문

1기 윤미영 집사 (5교구)

8주간의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다. 이어서 중보기도로 헌신하면서, 중보기도자, 기도대상자와 기도요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셨다.

중보기도부에 긴급 기도요청을 받았던 A 어린이의 사례에서 그 어린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내 일처럼 감사하고 기뻐는데 이는 중보기도자가 받은 은혜라 생각된다.



코로나 기간 중 줌 수업 수료 소감

6기 임채운 안수집사 (4교구)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현교회 중보기도팀 기도훈련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낭독하듯 영혼 없는 기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매일 매일 기도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 기쁜 마음과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에 힘쓰

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충현교회 중보기도자로서의 소명과 특권과 의무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기 강정자 권사 (8교구)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셔서 일꾼 삼아 주셨으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서의 다리가 되기 위해 6기 중보기도 훈련에 동참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였지만 1강~8강까지 강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심화과정 훈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내 기도의 열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충현의 기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E.M. 바운즈

6기 박병희 집사 (청년 3부)

모태신앙인으로서, 뜨겁게 간증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며 나에게도 저런 깊은 체험의 순간이 올까 부러워하며 평탄하게 교과서적으로 내 신앙을 지키며 그럭저럭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4남매 중 막내 남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꽤 이식수술까지 몇 년이 흐르는 가운데 가족들 모두 뿔뿔 뿔뿔 뿔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평생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처음이었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기억하며 기도동역자로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나 역시 중보기도 소명을 갖게 될지 이전엔 생각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투병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기도를 사모하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었던 분들처럼 나도 기도의 조력자 되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전엔 고민이 있을 때면 기도해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기도는 입술로 일방적으로 내뱉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중보기도훈련을 통해 내 기도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은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청년 3부에서 중보기도팀으로 훈련하고 내년에는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사명을 더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6기 신보경 집사 (청년 3부)

한때 기도에 관해 깊이 알고 싶어 수십 권의 책을 주문하여 읽었습니다. 그래도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보기도훈련을 통해 강의마다 도전받았습니다. 중보기도의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알았고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중보기도를 진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주의 일하심 가운데 나도 증인으로 서게 될 일이 기대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시간 중보기도 작성

6기 이성숙 집사 (11교구)

중보기도훈련을 받으며, 성경 말씀을 붙잡는 기도 습관을 갖는 거룩한 불씨가 되겠다는 다짐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간절한 기도로 기도의 지경 또한 넓혀가도록 소망합니다.

6기 이호숙 권사 (4교구)

이번 중보기도훈련을 통하여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중보기도를 보다 성경적인 틀에 기초하여 기도자의 태도와 의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늘 기도는 어렵다는 생각에 갇혀 소홀히 하던 중보기도를, 삼상 12:23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홀을 통하여 나 자신이 기도자인 동시에 동역자로 서야 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의심 없이 성실하게 기도해야 함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 국가 및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중보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기도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훈련을 담당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중보기도부의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기 박원화 장로 (4교구)

7기 중보기도 훈련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자세에 대해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허리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 들 때 누군가(중보기도자) 날 위한 기도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영육의 회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에, 기도의 빛진 자로 미약하나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부터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씀이 강하게 들리며 기도는 내가 매일 숨 쉬듯 매순간 하나님이 붙어넣는 생기를 마시는 시간이며, 기도는 결국 내 영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고 주님과 소통하고 심정이 통하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수요건이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응답받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를 본받아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7기 김형미 권사 (9교구)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잘 알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오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알라, 열심히 알라 하신 말씀을 이제 실감합니다. 믿음 생활에 힘을 쓰려니 모든 저의 능력이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일생 핑계댈 수 있는 정당하다는 이유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기도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모세처럼 말씀에 의지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연대하여 합심 기도하길 결단합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내 수준으로 기도할 때 외면 마시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사 주님의 뜻 안에서 중보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뵈는 날까지 나의 힘의 근원이며 반석이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7기 김선아 성도 (11교구)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어 충현교회로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교회마다 시스템이 달라 충현교회에 어떠한 봉사처가 있는지, 교

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싶은 의문이 들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관심 두고 찾아보던 중 중보기도부에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훈련을 마치며 그 중요성을 새삼 느꼈고 믿음 없는 기도할 수 없음을 다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 나도 최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7기 정경희 권사 (6교구)

교회에서 훈련했으면 아프다고 출석하지 못했을 텐데 온 라인으로 훈련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전도사님께서 권해주셔서 교육기간 동안 즐겁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끊임없는 기도의 도움으로 사랑을 받았고 또 나도 남을 위해 중보기도로 섬길 수 있게 되어 빛진 자로 빛 갚는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영광을 볼 수 있게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기도로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섬기겠습니다.

7기 채은미 권사 (3교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답답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힘들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은 어려움 중에도 저에게 주신 유익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상반기 순모임 중에 짧은 주기도문과 4가지 기도 에 관하여 여러 주에 걸쳐 묵상하고 나눔을 가지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4가지 기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가족,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 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드릴 수 있는 성숙함이 부족했고 더 넓은 영역으로 기도의 확장이 필요한 도고(禱告)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론과 훌의 도고를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남을 위한 기도의 시작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어 성령님 도우심 아래 훈련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중보기도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족하나마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기 임효정 권사 (9교구)

피택권사 교육 시간을 통해 중보기도 사역에 관한 얘기를 듣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강을 들으면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는 특권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왕으로 부르는 사역이라는 말씀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보기도 사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기 송계월 권사 (5교구)

코로나로 서글픈 것은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중보기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실 난 나이만 먹고 교회만 오래 다녔지, 기도는 초등 수준이다. “이 수준으로 중보기도를?” 언감생심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등록을 하였다.

4주간의 훈련을 마치며 “하나님, 중보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해보자”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다. 충현교회 중보기도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8기 김정현 안수집사 (7교구)

8기 중보기도 사역훈련에 많은 참여 바란다는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1기 중보기도 사역훈련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나서 선뜻 신청하지는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 바로 신청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보기도 사역훈련 첫 시간부터 드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기도도 잘 못 하는데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주 한주 훈련받으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간절한 마음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중보기도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간절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사역훈련을 진행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육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 기도에 주목하신다는 말씀에, 나는 그 거룩한 소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기 최난영 권사 (1교구)

그동안 중보기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저의 개인적인 바람만 기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다시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기도를 여러 기도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여 기도 사역으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8기 박영미 집사 (10교구)

나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기보다는 그저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에 급급했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한 소수의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8기 박은선 집사 (12교구)

교육을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선입견(어렵다, 나는 해당이 안 된다 등등)과 퍼즐 조각처럼 띄엄띄엄 알던 얇은 지식이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나하나 맞춰진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금 이 순간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기 김민준 성도 (11교구)

기도의 감동을 잊고 지낸 몇 년은 참 슬픈 시간이었는데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다시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시간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8기 이용현 집사 (청년 3부)

4주 동안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8기 손경순 성도 (7교구)

지금까지 기도한답시고 영혼 없이 기도드렸음을 회개합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를 통해 계속 열렬하게 기도하여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기 김소희 집사 (청년 3부)

4주간 8번의 온라인 강의로 중보기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역사에 동참시키고자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9기 박미향 집사 (9교구)

중보기도부는 기도에 자신 없는 저랑 상관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에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생긴 계기로 중보기도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훈련받으며 그동안 제 기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문제를 두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과 다른 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제가 결합하여 중보기도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9기 김경진 성도 (9교구)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중보기도를 막는 내 마음속 미움과 불신, 우상을 보았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세의 전조,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근과 홍수와 같은 기후 이상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기도해야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삼상 12:23 말씀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자로 자리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기도 교육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9기 서수정 집사 (2교구)

중보기도 훈련을 권유받고 망설였으나 시작이 반이라고 주님 도우심을 믿고 등록하니 고민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훈련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항상 내 문제, 내 아픔을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며 ‘중보기도 훈련 또한 주님이 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오니 나의 판단으로 기도하지 않기, 응답 없다 포기하지 않기, 시간 없다 핑계 대지 않기의 원칙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를 향한 간절함에서 이웃을 위한 간절함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9기 임영이 타교집사 (4교구)

먼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중보기도 훈련은 평소에 기도 생활이 부족한 저에게는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간곡하게 주님께 구하고, 좀 더 주님께 다가가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또한, 기도는 입술로 소리 내어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귀에 담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9기 이창순 권사 (4교구)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 못지않게 여럿이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서, 교구에서, 순에서, 중보기도부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심을 봤습니다.

훈련을 통해 깨달은 것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열정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깨어있는 기도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줄을 잡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9기 정영숙 집사 (4교구)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기도 훈련에 참여하게 하시고 매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사심에 참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훈련 / 짝기도

9기 박옥희 권사 (4교구)

중보기도를 부담으로 여겨 피하기만 했는데 훈련을 통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을 힘입어 중보기도하면 그것은 건너지 못할 강에 다리를 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중보기도자로 세워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9기 박철순 권사 (10교구)

중보기도 훈련에 불러주시고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훈련 가운데 전에 안 좋았던 부분이 다시 나타나 마음의 염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했지만 회개하며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기 오경숙 권사 (4교구)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린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곤할 때도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시간 없음을 변명하지 않고 시간균형을 이루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 자리로 나아가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9기 노신정 성도 (5교구)

저는 개인적인 어떤 후유증으로 어느 날,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다음부터 전혀 생각나지 않아 짙은 먹구름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후부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던 차에 중보기도훈련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셨듯 저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 주님을 닮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섬김이 권사님 모두에게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10기 손경희 권사 (6교구)

중보기도 신청할 당시 일단 훈련받고 중보기도 헌신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자는 마음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교육 첫 시간부터 나의 이런 생각을 회개하게 되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돌아보면 그동안 나의 기도는 나와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게 되기를 다짐한다. 아직은 기도하는 데에 많이 서툴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10기 신춘희 집사 (4교구)

처음 중보기도훈련 권고를 받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으나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니 기도를 통해 진정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선지자들의 기도사례를 강의하신 목사님들과 수고하신 전도사님 장로님 및 여러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전 교인이 중보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10기 성정례 권사 (4교구)

중보기도자는 다리를 놓는 중재의 특권이라고 하시니 내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이 감사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기도는 실천’하는 것이니 소망 가운데서 기도에 빈곤하지 않고 기도를 실천하여 기도의 부자가 되어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10기 허국현 집사 (7교구)

받은 응답에 감사해 기도의 빛을 갇고자 스스로 찾아간 자리였으나 원래의 의도보다 더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라고 부르신 자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 겸손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강의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수고로 섬겨주신 여러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10기 전경희 권사 (1교구)

중보기도 훈련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위주로 하던 기도에서 나아가 언약의 주님을 붙들고 폭넓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과,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나 또한 언약을 붙들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10기 박선영 성도 (1교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활동도 안 하고 믿음과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음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는데 중보기도훈련 모집 광고를 보고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충현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주 동안 강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강의도 좋았고 섬기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도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기도실에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공동체의 사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작성

10기 오승민 권사 (2교구)

먼저 중보기도 사역훈련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훈련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음에 중보기도의 삶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날 헌신자의 날은 기도 응답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사역을 통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 중에 나타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골방 기도를 작정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훈련을 통해 새 힘을 받아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10기 전예준 학생 (고등부)

고등부 수련회로 인하여 3주 차 훈련은 받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3번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됐다.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중보기도는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어도 중보기도로 내 가족이 더 굳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중보기도는 그 행위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10기 박은하 집사 (3교구)

작년 여름, 중보기도훈련을 받은 남편이 강의내용이 좋라며 중보기도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나는 아침마다 부모님 댁에 가야 했고 중보기도봉사를 위해 교육받는 게 형식적인 것 같아 별 관심이 없었다.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기도도 잘못하는데 남들을 위한 기도라니...

어느 날, 나와 친분 있는 분께서 올해 중보기도부 섬김이를 맡아달라 요청하셨다. 섬김이는 기도 봉사가 아니라길래 승낙했는데 나중에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알았다. 섬김이도 매주 1시간씩 중보기도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했다. ‘네가 중보기도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너와 할 말이 있단다.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중보기도 스케줄에 내가 희망했던 요일과 시간은

이미 다른 분들로 채워져 있었다. 중보기도훈련은 끝나가는 데 중보기도봉사를 언제 해야 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

‘마땅한 시간대에 자리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중보기도봉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대가 떠올랐다. 다행히 중보기도 스케줄표에도 그 시간에 딱 한자리 남아있었다.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제 바람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드리지만 제 발등 너무 짝으셨어요.”

10기 황윤희 권사 (9교구)

작년 60기 권사 피택교육을 받으면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중보기도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보기도 훈련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통독을 하며, 매일 성경 묵상과 큐티를 하는 모든 교육 훈련의 과정이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깨우치고 결단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에 큰 감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성경의 여러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배우며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때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기 임선희 집사 (1교구)

소망부에 계시는 나의 멘토 신삼순 권사님의 소개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중보기도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제자훈련을 그대로 적용할 좋은 기회라고 참여를 권유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직장에 다니는 나는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교구 모임에 참석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또한 4주 교육을 잘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하면서 나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였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었다.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총현교회 기도운동, 신약의 기도 등 모든 과정을 목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헌신자의 날’이었다. 권사님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2월 5일 주일에 기도카드 2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하나는 친구를 위해, 다른 하나는 조카를 위해 낸 것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주일도 되지 않아 기도응답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카의 공황장애가 80% 나았다는 것이다! 기도카드를 작성하자마자 기도응답을 받으니 신기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도 중보기도의 힘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의 믿음은 약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복음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역을 통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모든 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한다.

10기 전소윤 집사 (12교구)

중보기도 훈련기간은 기도의 중요성과 참된 중보기도자가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시간을 선택해 기도로, 무너지는 곳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중보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시작은 어렵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10기 문소은 권사 (6교구)

평소 중보기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남을 위한 기도인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물론 하나님 곁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선배님들의 절실한 기도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간곡한 기도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중보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기도였고 그다지 절실하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그동안 어리석고 부족한 자신에 대해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번 중보기도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다 성숙한 기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도요청자와 한마음으로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참된 중보기도의 힘을 갖길 원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교육과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어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0기 김성호 장로 (3교구)

연약한 가운데 중보기도훈련으로 인도하시어 새롭게 하시
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기 강여경 권사 (10교구)

누군가를 위한 기도보다, 아직도 어정쩡하게 행하는 나의
기도를 체계적으로 다듬고 싶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훈련에
임하게 되었다.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기도를 알려주기보다
중보기도에 국한된 교육이어서 처음엔 다소 괴리를 느꼈으
나 중보기도의 필요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다.
나아가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
어질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의미 있
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일사불란하게 임하는 임원들 수고에 감사드린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6)”**

2. 자녀기도 훈련 소감문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애가 2:19)

1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후기 2019년 5월 8일~29일



지훈 맘 (김한주 집사, 3교구)

먼저 좋은 훈련과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 중 한 자녀를 위해 집중기도할 때면 마음 한편이 아려옵니다. 자녀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감사 100가지를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다는 것

에 놀랐습니다.

4주간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앞으로 6개월간의 기도시간을 기대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나와 다른 것 같습니다. 친절하시고 맘씨 고운 짝꿍과 6개월 동안 자녀를 위해 정성껏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윤 맘 (한은주 권사, 3교구)

같은 순 권사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시작하게 된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1기에 참여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 없이 막연하게 들어온 저와는 달리, 너무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준비하신 홍명주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4주의 교육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실제 적용으로 짝과의 6개월 기도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업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녀의 100가지 장점을 생각하며 감사를 쓰는 과제였는데, 자녀의 단점만 본 저를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체계적 기도가 앞으로 저와 자녀의 신앙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위해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섬김이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꼭 참여해 볼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수빈 맘 (김혜란 권사, 2교구)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중보기도부의 요일섬김이를 하는 덕분에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빨리 접하게 되어, 망설임 없이 참여 신청을 했다. 자녀가 2명이상이라도 1명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어서 우선 큰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시간에 들어갔다.

1시간 동안 말씀에 근거하여 ‘대화식 기도법’, ‘단계별 기도법’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받다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찬양기도, 고백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 4단계를 짚지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동의하고 경청하며 진행하는 기도법이 매우 새롭고 간결하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짝과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로 동의하며 소리 내어 기

도하니 중보하는 힘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요일별 기도 카드에 천군만마 같은 느낌을 주었다.

딸에 대한 100가지 감사내용을 적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고, 딸의 행동도 소리 없는 작은 변화를 보이게 되니 요즘 참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부터 24주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짝과 함께 ‘4단계 대화식 기도법’을 토대로 짝궁의 자녀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속한 학교, 선생님, 교회학교와 부서, 직장 등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뤄지니 앞으로 6개월의 짝기도 시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계획하심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예수님 사랑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한다.

기도학교를 마련하신 중보기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상은 맘 (이옥경 원사, 3교구)

어느 순원이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를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내고 기다렸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착각한 것이 있었다. 5월 한 달만 나의

자녀를 위해 짝지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4주 교육을 받고 짝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미리 말씀을 예습한 후 6개월 동안 만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이었다.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일찍 준비하여 기도학교를 하면서 나의 자녀와, 짝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아들 상은이에게 조금은 덜 미안했다.

기도학교에 가기 전에는 어떻게 1시간 동안 내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한 주, 한 주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며 궁금증이 해소되니 재미있고 기대가 되었던 5월 한 달이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중보기도 과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가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세대가 되도록 짝과 함께 6개월 동안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아뢰는 엄마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예성 맘 (이지수 집사, 11교구)

4주면 끝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가 수료와 함께 앞으로 6개월 동안 짝과 기도 모임을 해야한다니 사실 막막하긴 하다. 특별새벽기도회 후 남편과 새벽기도를 걱정했고, 저녁형 인간인 나는 아직도 새로운 생활리듬에 적응 중이다. 그리고 안면 신경 장

애로 인해 피곤하면 얼굴에 마비가 오는 듯해서 피곤한 상황을 피하고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만 생각했던 나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스러웠다.

짜깁 집사님 스케줄이 짝 짜인 상태여서 내가 피하고 싶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는 것은 나에게 추가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기도훈련을 한다는 것은 기대가 된다. 요즈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욱 바로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구한다. 또 이 훈련을 무사히 마침과 이 과정을 통해 지금 나의 한계가 극복되기를 기도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9-20)”**

2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후기 2019년 9월 20일~10월 11일



석원 맘 (장엽선 권사, 4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들 가족을 위해 4단계 대화식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였는데 불구하고, 둔하고 믿음이 약했던 엄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아들은 붙들어 주고 예수 사랑으로 기쁘게 인도해 주지 못하여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견 맘 (박애희 권사, 6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로,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에 들어와서 배우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감사와 회개할 때, 일반적인 문제를 내 감정으로 부르짖고 말씀을 깊이 의지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를 통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니 오래 젖은 잘못된 기도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잘되지 않았지만 이제 좋은 짝과 배우고 훈련한 대로 적용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짝기도 수업에 집중하는 엄마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 5:16)”

송미 맘 (안재숙 집사, 6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매일 한다고 하는데도 더 많이 해야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양이 중요한가?’ 생각하며 위안을 삼아도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내 기도의 질은?’이라는 질문이 바로 떠올라 자신감을 잃게 되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주기도문 첫머리로써 자녀를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찾아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느꼈습니다. 정해진 형식에 약간 얽매이는 느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미사여구가 낯설기도 하지만 기도학교에서 배운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를 알고 내 삶을 기도로 드리는, 삶의 기도가 있어야 내 입술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주간 짝기도를 앞두고 내 입술의 기도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뿔과리가 되지 않도록 짝과 함께 기도로나아가려 합니다. 기도가 잠잠히 삶에 스며들길 바라봅니다.

예나 맘 (오광순 권사, 6교구)

2기 자녀기도학교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기도'라는 네 글자가 계속 내 맘을 요동치기에 결단하고 교육을 신청 하였습니다.

첫날, 허둥지둥 지친 몸으로 교회로 향했고 '시간에 쫓기 니 하지말 걸.' 하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육이 시작되고 자녀에 대한 감사 100가지를 적어내라는 전도사 님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태껏 아등바등 마음 졸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4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을 배웠고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회개하기, 성경 속에 자녀 의 이름 넣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짝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기도 제목들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편과도 새벽마다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하 여 더욱 감사한 교육이었습니다.

현태 맘 (강영숙 권사, 3교구)

'1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수료자들이 짝을 지어 기도하 는 모습을 보며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목적과 기도방법 또 4단계 대화식 합심기도를 배우고 익힌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회개하며 또 응답받은 내용에 감사를 드리고 성구 기도로 자녀를 위해 서로 짝지어 기도하는 기도학교였습니다.

자녀를 통한 감사 100가지를 적어오라 했을 때 처음엔 100가지란 말에 막막했지만 하나하나 적어가며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두 명 때론 세 명씩 짝을 지어 기도할 때에 정말 말씀에 의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짝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 기대하여 봅니다.

호현 맘 (이울의 권사, 1교구)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기도의 폭과 깊이도 크지 못합니다. 또,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머니의 의무로 한다는 생각에 내 욕심으로 날마다 비슷한 말을 읊조렸습니다.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목사님 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과 회개가 앞서곤 했습니다.

여러 기도 중에 우선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2기에 등록했습니다. 4주 훈련을 통해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달려들기만 했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내게 응답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참으로 큰 깨달음을 주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것은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델이 아닌가! 나는 지금 나의 짝꿍 권사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회개하고, 나의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인규 맘 (원향빈 집사, 2교구)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어언 50여 년 되어갑니다. 초·중·고 교회학교를 거쳐 결혼해서도 교회에 발걸음은 계속됐건만 워킹맘의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말씀도 제대로 못 읽으며 건성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칭 ‘날라리 집사’라고 그랬지만 진짜 ‘날라리 집사’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가 열린다고 하여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 잘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 신청하였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혹은 기복기도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역시 여태까지의 내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떠난, 말씀을 벗어

난 기도였습니다. 이번 기도학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믿음이 좋은 친구한테도 들었지만, 실천을 못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수첩을 가까이하며 자녀를 위한 요일별 말씀 기도카드를 매일 읽으며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겠습니다.

석제 장모 (오승민 권사, 2교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영적 갈급으로 기도하던 참에 ‘2기 자녀기도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진정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는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할까 생각하다 최근에 딸을 얻어 새내기 아빠가 된 우리 사위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배운대로 앞으로 체계적인 기도와 짝기도를 통해 사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위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아들이길,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길 날마다 기도드립니다.



합력 기도 - 기도하는 모세, 팔을 받친 아론과 훌

3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후기 2023년 5월 3일~24일



2023년 5월에 열린 3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은실 맘 (홍정호 권사, 10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훈련을 받고 짝기도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육받을 때는 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여겨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부터 예상을 확 뒤엎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새로운 기도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서로 공감하며 나누는 기도의 순서 속에, 그동안 말로만 주님께 기도드렸음을 회개하며 찬양과 감사, 중보, 성구기도, 간구를 통한 모든 기도가 말씀으로 드러지고 있음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피고 조금은 쑥스러웠던 짝기도 또한 서로 말씀 안에서 공감하며 나눔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또한 욕심으로 드렸던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돌아보게 하시며 작은 것조차도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함께 자녀를 위한 짝기도를 통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형민 맘 (김정옥 권사, 10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를 통해 자녀를 세상 이치에 휩쓸려 욕심으로 키웠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 중에 100가지 감사를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100가지? 10개도 없는데 무엇이 감사지?’ 하고 생각하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떠올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육 후 24주 짝과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 가는 아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울 할머니 (김종녀 권사, 9교구)

자녀를 위한 짝기도를 하면서 짝인 강 권사님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막연히 기도하였는데 서로에 대해 나누면서 기도하게 되니 그 가정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짝 권사님의 딸

문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직접 만났을 때 한없는 사랑이 샘솟는 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다울이에 대한 마음도 더욱 깊어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성 맘 (김한주 집사, 3교구)

먼저 자녀를 위한 기도훈련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쁘기만 하던 지성이가 좋아하는 축구를 못 하게 되고 또 코로나를 겪으며 게임에 빠지니 많은 시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 힘들었어요.

낙심하고 있던 제게, 지성이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겸손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축구도 공부도 내 마음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주 기도 짝꿍과 두 손 모아 학교 선생님과 친구까지 확장 기도하면서 마음의 지경도 넓혀주셨습니다. 아직도 현실은 답답하지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딤후 2:1)”**

Ⅲ. 중보기도 응답감사문

1. 한 줄 감사

-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성장판 있는 팔이 골절되었는데 많은 분이 기도해주셔서 ○○가 깁스를 풀고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 19개월 손주가 전신마취로 시술을 하였으나 깨끗하게 잘되어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자녀가 둘째 출산 전에 하혈과 아기 처짐이 있었는데 기도 후에 4월 새벽에 미국에서 건강한 아들 순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완치됨에 감사드립니다.

- 아버님의 담석증으로 인한 담낭제거와 간에 있는 돌 제거 수술이 예상보다 수술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좋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목부상으로 깁스하였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빠르게 치료됨을 감사드립니다.

-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던 아들이 5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일을 계속하며 직장생활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 가족이 쓰러져 의식이 없었는데 3일 만에 회복하셨습니다. 중보기도부에서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9월에 갑상선저하증 약 온전히 끊었고 10월 중으로 협심증약도 끊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딸이 5월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중보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들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심정지 이후 소생 불가하다는 진단받았으나 분당 서울대병원 전원 후 일반병동으로 옮기고 가족감호 중입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적과 재활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함께 기도해주셔서 큰아들이 논문의 작은 주제로 한편의 짧은 글을 완성했습니다. 아직도 대학원 논문을 계속 써야 하지만 중보기도 덕분에 힘입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써야 할 논문 주제도 찾았습니다.

- 친구가 건강을 찾아 5월 1일부터 첫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 작년 11월 즈음 아들이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을 때 중보기도부에서 기도해주셔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영적 생명력을 부어 회복케 하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해주신 중보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 딸의 초기 녹내장 진료와 검사결과가 6월 11일 나왔습니다. 크게 진행된 부분이 없고 단지 고도근시로 인한 양상으로 판단되어 1년 후에 다시 검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며 말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남동생의 방광암 수술을 레이저로 하게 하셔서 큰 수술 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해주옵소서.

- 김○○ 어린이 (5세)의 눈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신우
요관암과 담낭제거 수술이 잘 되어 회복하여 퇴원합니다.

- 할렐루야 아멘! 지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주일에 따님 결혼식 잘 치
르고 다시 얻은 새 생명 믿음으로 회복합니다.

- 자녀 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군 생활을 안전
하고 무사히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 덕
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
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께 올려드립니다.

- 가출했던 중학생 제자가 현재 위탁 교육을 받으며 안
정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계속 중보해 주세요.

- 친구 동생의 갑상선암 수술이 잘되어 회복 중입니다.
친구의 췌장염증 제거 수술이 잘 되어 암까지 발전하지 않
아서 감사합니다. 회복 중입니다.

- 도박장에 나가던 남편이 3년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였
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부활절 때 은혜롭게 세
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 아버지 병상 세례받으시고 주일에는 실시간 예배 영상 시청으로 말씀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올케의 피부암 수술을 잘 마쳤고 암이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피부 이식을 했는데 상처가 잘 아물고 있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20대 조카가 방 밖으로 한걸음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씻지 않았던 아이가 목욕을 하고 방을 청소하고 한밤이기는 하지만 밖에 나가서 6km를 걷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6월 8일 최선을 다해 박사 논문제안 발표했고 6월 15일 지도교수님과의 줌 회의를 통해 다행히 논문지도 통과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보기도 팀원들의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김희선: 산모(자부)와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동주: 미국에 있는 손녀가 기도 덕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알레르기인 호흡곤란에서 벗어나 퇴원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현희: 중보기도의 힘으로 아이들이 퇴원 후 잘 호전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순경 : 손자의 검사결과 크론병 징후가 없고 대장 알레르기 일반 염증으로 판명 났습니다. 알레르기성 치료와 정기적 피검사, 식단조절 처방받음을 감사드리며 중보기도부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전영희: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수술이 잘되고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과 중보기도 팀에 감사드립니다. 근시와 원시도 잘 보이고 성경도 돋보기 착용 없이 읽습니다.

박현주 : 딸이 결혼 9년 만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기도해주신 중보기도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중보기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손선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정일 하루 전 태아가 크다고 염려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성숙 : 미국 비자가 순조롭게 나와 제때 복학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부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진정원: 방사선 10회를 부작용 없이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유리: 믿음 없고 교회를 안 좋아하는 시대와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교구 영성훈련과 시아버지 생신 행사가 겹치지 않게 잘 정해졌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연화: 아들의 결혼 날짜를 잡게 하셨고 잘 준비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아들이 투자하고 대출 심사하는 등 항상 어려운 결정을 하는 힘든 자리에 있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높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안현주: 어머니께서 0.1 시력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글과 사람의 형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던 답답함을 거둬주시고 다른 수술 사례보다 결과도 좋아 70%의 회복을 바라며 실행한 백내장 다초점 수술에서 1.0 이상의 시력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김금순: 친구 아들이 만성체 양성 대장염이란 불치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어려워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받아 감사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기니 감사합니다.

이민성: 10월 12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과 신대원 입시 관련하여 면담하였고 내년 준비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경험 삼아 이번에 준비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준비했습니다. 1차 합격 후 노회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목사후보생 고시를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류접수를 못해 아쉽지만, 내후년 입학을 목표로 주님과 동행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황수안: 태국선교사 장녀가 기도와 사랑으로 한국의 좋은 곳에서 잘 머물러 치료 잘 받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숙소를 제공해주신 이○○ 권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중보기도부에도 감사합니다.

태일희: 순원이 유방암으로 인한 항암치료 여부 결과 0%로 나와서 항암치료 하지 않으셔도 됨을 응답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조춘옥: 친구 아들이 항암 6차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현숙: 기도의 열매가 나옴으로 열려서 아들이 90% 가까이 시력을 회복하여 적응 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중보기도부 회원들께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조옥련: 친구의 폐 결절 제거 수술 중 폐암으로 진단되어 암을 제거하고 전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중보기도해 주신 중보기도 헌신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미연 : 비행 교관 자격증 합격 감사합니다.

이성숙: 남편 집사 심장이 안정되어 어제 퇴원하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박수정: 친구 아버지께서 위암 종양 제거수술 후 뿌리까지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중보기도부 감사합니다.

조인희: 남편의 근육과열 치료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남편이 일상에 무리 없이 생활하게 되었어요. 기도해 모든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남편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작품 활동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은하: 교회 안 다니시는 시댁 형님 (시아주버니 부인) 말씀으로는 시아주버니께서 어느 정도 아버지를 여윈 슬픔을 이겨내시려 하는 것 같고 제사도 살아있는 자들의 위안

일 뿐, 진짜 효도는 고인의 생전에 해드리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권해선: 검사결과 아기의 증상이 감기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멍울이 10cm → 0.25cm 로 대근육 발달이 조금 느립니다. 피부도 병원 처방 크림 바르고 좋아졌습니다. 담관은 10월에 초음파 검사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선희: 전 직장동료의 성대에 있던 혹이, 긴급기도 작정 후 10일 만에 없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질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중보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딸아이가 초 6 이후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중보기도부에 기도 요청하였는데 청년 1부에 스스로 나가기 시작해서 청년 1부 수련회도 가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두개인두종 수술 후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다가 중보기도의 도움으로 호르몬 수치가 회복되고 항이뇨 호르몬도 많이 좋아져 부신피질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2. 응답감사문

2회 헌신자의 날 김보름 집사 (4교구)

저는 청년 2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김보름입니다. 두 달 전 어머니께서는 뇌동맥에 파리가 생겨 수술받으셨는데 요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려 합니다.

처음 제가 어머니 진단을 들었을 땐, 어머니를 잃을까 봐 상당히 두렵고 불안하였습니다.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게 됐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그라들고, 누군가 함께 기도한다는 생각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떨리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더욱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술 일정이 빠르게 잡혀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 예약하려 했지만 2달은 지나야 예약할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지인 소개로 빠른 수술 일정을 잡게 되어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두렵고 불안하셨을 텐데 교구 목사님께 서 심방오셔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더욱 도움을 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실 문으로 들어가실 때, 아직 마취 전이었던 어머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보하는 중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확신을 어머니 마음에 주셨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던 성경 구절도 생각나게 하셔서 어머니를 안심시키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친가 외가의 모든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뜻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가족도 주님 앞에 돌아와, 매일 부부가 새벽예배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가정은 주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고 매일 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며 응원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주님 앞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뜻뜻미지근했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께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

저주실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생각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주신 중보기도부 모든 분과 교구 목사님, 장로님, 전에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3회 헌신자의 날 이복순 권사 (7교구)

먼저 저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달 전 갑자기 제 왼쪽 눈이 먹물 끼얹은 듯 안보이고 빛만 가늘게 보였습니다. 의사는 ‘맥락망막염’이라며 치료하면 예후는 좋은 편인데 체질에 따라 실명할 수 있다며 특히 당뇨 환자는 치료해 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뇨 환자인 저는 혹시나 실명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근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치유의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에 돌입했으나 기도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찬송이라도 부르며 기도가 나오길 사모하던 중 중보기도부가 떠올라 기도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찬양 중에 눈물 나며 막혔던 기도가 시작되어 많은 회개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었고 이렇게 많은 죄를 끌어안고 살아온 제가 죄악 덩어리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됨에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은 죄로 인해 기도가 막힌 제 심령을, 중보기도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강박하고 죄악된 심령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화시킨 후 ‘너 근심걱정 말아라’라는 위로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시고 감사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제 눈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이젠 정상에 가깝도록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회복이 빠르다며 기뻐하면서도 놀라워했습니다. 유능한 의료진을 만나 치료받게 하심도 중보기도 사역팀 기도의 결과임에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중보기도부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리어 드립니다.

4회 헌신자의 날 모현미 권사 (8교구)

중보기도를 통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 11월 17일 중보기도 긴급 기도방에 이런 기도요청을 하였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들다가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허리 아래에서 엉덩이뼈 전반에 전기로 찌지직 충격을 받은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후 허리 좌우가 틀어져서 앉아있기도 힘들과 누워있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10년 전에도 무거운 짐을 들다가 왼쪽 엉덩이 쪽이 심하게 틀어졌었는데, 또다시 그때와 같은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충격 있고 나서 침대에 눕긴 했는데 좌우로 움직여도 찌릿찌릿한 통증 때문에 일어나려고 허리에 힘을 가하면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습니다.”

몇 시간째 화장실 가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어 중보기도 부에 기도 요청했던 겁니다. 무서워서 새벽에 일어날 엄두를 못 냈는데 밤사이 통증이 사라져 병원 가기 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운전하여 통증 없이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팀과 주변 권사님들의 기도로 금방 회복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제 허리의 여기저기를 눌러 진료하고 양다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후, 척추 3번과 5번이 약간 좁아지긴 했지만, 이상은 없는 듯하고 인대가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고 신경이 눌리면 극심한 통증이 갑작스레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 딸은 저의 극심한 통증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단순한 허리 통증을 넘어서 마음까지 힘들었는데, 그때 저를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있지만, 함께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헌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의 아픔을 치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원경아 성도 (4교구)

기도해주신 장원준 형제 (21세, 원경아 성도 아들)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23일 뇌하수체선종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어젯밤 24일에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범위로 나오고 육안으로 보이는 종양을 다 제거했지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MRI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25일 MRI 상으로도 잘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께서 기도로 큰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응답 주실 거라 믿었지만 마지막 결과를 들을 때까지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던 걸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많이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에 원준이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여 짧게나마 글로써 감사 인사 대신합니다.

4회 헌신자의 날 차지영 권사 (10교구)

어머니께서 축농증 증상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콧물이 계

속 나와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검사결과 오른쪽 코 안에 있는 혹이 양성, 상악동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 헌신을 하고 있던 저는 중보기도 요청카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었지만 상황마다 기도를 요청하면 바로 중보기도방에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2019년 1월 첫 주부터 6월까지 크고 작은 4번의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술과 재발을 반복하면서 오른쪽 입천장 뼈까지 제거해야 했고 허벅지 살을 떼어내어 점막을 덮는 수술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9월에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여 틀니를 맞추려던 중 턱에 통증이 생기면서 오른쪽 주위가 부어올라 보이지 않게 되어 극도의 불안감에 안과를 찾아갔는데 6개월 만에 암이 재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눈 안쪽에서 암이 눈동자를 밀어내고 있어 안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주변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현실은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다행히 3월부터 치료는 호전을 보여서 표적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계속 기도요청을 해도 되는가 싶었지만, 하나님만이 답이었기에 계속 기도요청 문자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친정집 근처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고 4월 고난기간 중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튿날 2차 항암을 하고 성금요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어머니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어서 보이지 않았던 오른쪽 눈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혈액 염증 수치가 줄어 주치의도 많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진료실 안에 들어갈 때마다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팀원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던 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난 7월에 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위로관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 통해 어머니의 구원과 저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비마다 제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기간은 중보기도 부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주 3회 투석을 하시는 아버지와 치료 중이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마 6:33을 좋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힘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의 맡겨진 일들을 부족하지만,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섬겨주심같이 앞으로 저도 계속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회 헌신자의 날 채경애 권사 (평촌교회)

2021년 10월 28일 밤 11시쯤 동생이 응급실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넘어져 이마가 좀 찢어졌는데 뇌출혈이 있어 긴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전두엽 손상으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주치의 설명이었습니다. 너무 떨리고 두려워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문득 친구 권사가 사역한다고 했던 충현교회 중보기도부가 생각이 나서 기도요청을 하였습니다. 5일 정도 되어서 동생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해서 위험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호흡을 못 해서 깨우지 못하고 지켜 봐야 한다고 해서 다시 긴급으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매일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간 좋아진 것이 그나마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인공호흡기를 목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폐가 좋아지기를 이틀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며 현재는 희망도 절망도 아닌 지켜봐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긴급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매 순간 살얼음을 딛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치료를 진행하는데 주치의도 분명한 해법 없이 한 주 지켜보자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나하나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진행하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치료의 진행에 따라 염치불구하고 충현교회 중보기도부에 계속 기도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되어 동생은 호전을 보이며 온몸에 주렁주렁 달렸던 관들을 다 떼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산소호흡기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재활 병동으로 가기 전에 이마저 다 떼고 갈 수 있기를 갈망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산소호흡기로 무사히 교체하고 잘 적응하면서 수치상 미세하게 계속 좋아졌습니다. 이제 폐가 더 좋아지려면 호흡 재활을 해야 하는데 휠체어를 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 있으면 간편 호흡기로 교체하고 다른 재활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집중치료실에서 의미 없는 생을 살다가 그대로 가는 거라고 주치의는 또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따뜻하게 애기하고 싶어요. 영혼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데 “네 동생을 위해서 난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생의 좋아지는 변화에 마치 저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SOS. 중보기도 요청. 욕창까지도 이식수술 없이 제 살이 차올라오도록 또 중보기도 계속 요청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동생은 지금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동생의 상태에 따라서 중보기도 대원들에게 상태를 전달하며 옆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그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실 때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 나를 향하신 사랑을 물 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중보기도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현재, 기도 요청했던 채경애 권사의 동생 채후식 성도 소식입니다. 채후식 성도는 이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나인 채경애 권사와 함께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평소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윤정 성도 (11교구)

저의 친정어머니 김용숙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전, 파킨슨 투병 중인 친정어머니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병이 악화돼 큰 슬픔에 빠진 저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해주셨던 안화순 권사님께서 직접 전화해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 전해야 할지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도 만나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요청카드함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양윤정 성도의 어머니는 2023년 3월 소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양윤정 성도의 남편의 구원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중보기도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회 헌신자의 날 박숙경 권사 (10교구)

2018년 저는 예배기도단에서 기도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 가정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저는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죽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어느 날 목에 작은 종양이 있는가 싶더니 바로 야구공만 한 것이 잡혔습니다.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항생제를 일주일 먹어도 소용이 없자 세브란스병원 의사와 연결을 해주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혈액암 3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죽을 생각만 하고 있던 때라서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길면 1년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죽을 수 없는데 남은 시간 여행이나 다니며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의사 상담이 보통 5분인데 그날은 20분으로 상담이 길어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70세인데 벌써 포기하지 마시라며 울먹이면서 도리어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암치료병동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치료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은 미룰 수 없다며 빨리 서둘러야 한다면서 바로 입원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구교역자와 중보기도부에 기도요청을 하였습니다.

입원하려다가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와 2주 후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5월에 입원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전이돼 골반 안쪽으로 벌집처럼 암 종양이 짝 차 있고 온몸에 검은 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치료 후 의사가 알려준 사실입니다.

표적 치료로 항암이 시작되었고 6차까지 진행하면서 3개월마다 CT 촬영으로 경과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9월 중순에 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에 암

세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책임져주심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기도로 향암도 잘 감당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중보기도부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분들과 기도해주신 분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권사님이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라며 기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은 후유증으로 오래 움직이는 것이 힘겹지만 저는 감사의 고백만 드릴 뿐입니다. 은퇴 권사이지만 살려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쳐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기 김미자 권사 (10교구)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서 신경외과에서 5회 치료받았고, 한의원에서도 8회 침술

치료도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보기도부에 기도요청을 했습니다. 소리는 계속됐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자제해도 하루에 수십 번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중보기도부를 섬기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낫겠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2~3일 전부터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입을 크게 벌려보았습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을 일으켰던 모양과 자세를 취해보아도 소리가 나지 않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밀려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치며 감격의 눈물을 펄펄 쏟았습니다.

지난 추석,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나누기 전, 먼저 저의 턱관절을 치유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기다리는 막내아들 부부에게 임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부에 올려도 괜찮겠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막내아들 부부는 임신한 아기를 잃고 큰 슬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좋아요. 어머니.”라고 선뜻 응해서 중보기도부에 기도요청을 하였습니다. 9월 16일 ‘믿음의 자녀,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요청 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9일 저의 생일날 이른 아침 아들 부부가 찾아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며 선물이니 빨리 열어보라고 채근하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태아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함께 끌어안고 울고 웃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첫아기를 잃은 후, 두 번째로 5주 차에 아기를 잃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이번엔 10주 차가 되어서야 알려준 것입니다. 둘의 아픔이 엄청났지만 부모인 우리가 마음 아파할까 봐 말도 못 하고 지내다가 생일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은 매일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감사하기만 합니다. 9월 16일 기도요청을 했고 9월 25일에는 생리가 있었으니 확실한 중보기도의 응답이었음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중보기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3. 중보기도실 이전감사



2022년 5월 15일 중보기도실 이전감사예배

예전의 중보기도실은 본당 지하에 있었다. 창이 없는 탓에 공기가 나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많이 힘들었다. 특히 섬김이들은 장시간 봉사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야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헌신자들이 컴컴한 홀을 지나서 기도실로 와야 했기 때문에 보안상 위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부에서는 보다 나은 환경의 기도 공간이 필요하다며 하나님께 중보기도실 이전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기도 끝에 주님이 지금의 더 나은 기도실을 허락하셨다. 중보기도실 이전에 대해 감사드린다.

차장 황경분 권사 (2교구)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주님의 때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기도단과 갈급한 마음으로 요청한 기도 카드를 붙잡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실,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충현기도실이 교회의 중앙에 위치하여 마치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총무 김하경 권사 (2교구)

새롭게 이전한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들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마음을 다해 중보기도자로 섬기겠습니다.

서기 변인원 권사 (3교구)

단혀있던 가상 세계에서 활짝 열린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몇 년간 단혀있던 기도실을 정리하며 앞으로 교회의 새로운 충현기도실에서 주님과 만나 대화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부서기 김정원 권사 (1교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참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부회계 김미연 권사 (2교구)

예배의 회복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자의 사명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반장 이정미 권사 (1교구)

중보기도실을 옮기며 성도들이 오가며 기도실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주님과 만나는 장소이길 원합니다.

지인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과 힘겨움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 기도하는 300여 명의 동역자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며 환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서 잠들 수 있었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가슴에 품고 함께 울며 함께하심을 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심으로 오늘도 엎드리어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름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수요반장 이경순 권사 (4교구)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듯 밀알같은 자세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부 전도사와 임원진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욥 2:6~7)”

IV. 느헤미야 선교



2023년 5월 31일~6월 7일 중보기도부의 선교팀 19명이
스리랑카 캔디지역에 선교를 다녀왔다.

팀장 황경분 권사

선교의 4가지 유익

선교팀 훈련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선교의 4가지 유익에 대해 하신 말씀이 훈련 내내 생각났다. 첫째,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므로 보내는 교회의 유익이 있어야 하고 둘째, 가는 선교사의 유익 즉 내가 은혜를 받는 선교 그리고 셋째, 현지의 교역자에게 힘이 되는 선교 넷째, 그 교회의 성도들

에게 유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교지에 가보니 그곳에는 불교와 힌두교가 판을 치고 있었다. 우리나라 불교처럼 조용하지 않고 축제처럼 거리마다 불교의 행사가 넘쳐났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들은 작은 교회와 가정교회들이었다. 이번 선교사역은 그곳에 상주하는 선교사님의 인도하에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사역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한 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곳 성도들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며 감동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며 오히려 도전을 받았다. 그곳에도 이렇게 단단한 씨앗들이 심기어져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이 핏박 속에서 단단해진 씨앗들이라면 나는 온상 속의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회개를 했다.

영성훈련의 시간

이번 선교는 나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 선교 기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느헤미야 기도시간을 통하여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으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체험을 하였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이어졌다.

느헤미야의 기도사역이 계속되기를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았다. 마음은 원이로되 무너져 내리는 몸과 졸음을 억지로 참고 참아도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애쓰고 힘써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려는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다.

이번 우리 팀의 선교로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방문한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는 동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열방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주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홍명주 전도사

‘느헤미야 기도 선교’라는 특별한 선교팀이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일 오후마다 모여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훈련을 하였다. 스리랑카 언어로 찬양하며 선교 준비를 할 때는 벌써 현지에 간 느낌과 설렘도 있었다. 그러나 교역자의 책임감도 만만치 않아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도 있었다.

우리 선교팀 구성원 19명은 교구도 다르고 봉사부서도 다른 이들로 구성, 그저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교집합으로 구성한 팀이었다. 게다가 구면도 아니고 서로 처음 만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

선교를 앞두고 선교팀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팀장의 모습이 울림이 되어 팀원들은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통로로만 나아가기를 기도하였다.

선교지 숙소에서 아침마다 2시간가량 이동하여 3곳(쿠르네갈라, 람부칸나, 페라테니아)에 있는 교회와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현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후 모두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형식이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혹시나 불어오는 바람을 기대하면서 팀원들은 온전히 선교에 집중하였다. 불교국인 스리랑카에서 기독교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거리에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성도들과의 만남은 감동이었다. 그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말씀과 기도로 확장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다.

선교를 통해 그들을 응원해 줄 수 있어 감사했고 더 큰 감사는 나의 신앙에 도전이 되었고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느헤미야 기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린다.

김정원 권사

스리랑카 느헤미야 기도회 선교에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캔디는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조인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또한 이방 신의 치아를 보관하고 있는, 불치사라는 사찰이 있는 불교도시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역한 캔디 지역은 소승불교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방문한 곳은 캔디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와 가정교회에 방문하여 느헤미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쿠르네갈라 지역의 AOG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교회에서 들려오는 은혜로운 찬송 소리에 놀랐고 우리가 준비한 타밀어 찬양 ‘예~쭈쓰 야하빨여 (종으신 하나님)’를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말씀 읽고 묵상하며 간증할 때 비록 한국어에서 싱할라어로 싱할라어에서 타밀어로 2단계에 걸친 통역을 통해 복음을 나눴지만, 말씀 안에 하나 됨의 감격을 이뤘습니다. 믿음 안에 간증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람부칸나 지역과 페라데니야 지역의 가정교회는 동네 안쪽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 때에 간증하는 현지 사역자는 처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중에 어려움당하고 낙심하여 예수님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오히려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늦어도 오후 3시 30분에 마지막 버스를 타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스리랑카 현지인을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진행하는 느헤미야 기도회는 현지인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를 깨닫고 나의 믿음을 조명하고 회개하며 재

건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성은 목사님과 홍명주 전도사님을 함께 선교팀에 보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단단히 묶어 주셨습니다. 또한 황경분 팀장님을 중심으로 19명의 선교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선교사님들과 통역 전도사님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어서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방문할 때마다 이곳을 위해 많은 시간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느끼며, 선교사님께서 한결같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헌신하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식사 준비까지 해주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눈 수술 후 한쪽 눈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인데도 섬겨주시고 반겨주시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3조로 움직이며 서로 먼저 섬기며 주어진 일에 서로 먼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하며 함께 했던 선교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느헤미야 기도회 선교팀을 위해 기도로 동역해주시고 보내주신 충현교회에 감사드리며 우리 선교팀이 건강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숙자 권사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선교가 위축됐다가 재개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팀 구성부터 사역을 마치고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중보기도사역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느헤미야 중보기도사역이라 긴장과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종일 기도만 하는 사역인가? 기도 사역이라면 굳이 현지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현지인들을 만나 전도지를 뿌리고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사역하던 사람들이, 한곳에서 몇 시간씩 기도만 하는 사역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부부선교사들이 10여 년 전 스리랑카에 자비량 선교사로 올 때 순회선교단에서 훈련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와 열방을 향한 기도사역자의 소명으로 지금까지 기도로 섬기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사역합니다.

소승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는 불교의 텃세가 심한 곳입니다. 정치권과 사회의 요직에는 불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편견으로 고난과 핍박은 물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가정교회 성도들을 만나 느헤미야 기도사역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은혜, 말씀, 회개, 반성 등을 서로 나눴습니다. 현지인들의 가슴뭉클한 사연을 듣고 눈물 흘리며 감동 받았습니다. 현지인들의 신앙고백을 듣고 나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쁨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고 주

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열방과 생이 끝나는 날까지 세계를 위한 기도자로서 살 것을 결심하며 선교 소감을 마칩니다.



람부칸나 지역 라이트 하우스 교회/ 주일예배 후 환우기도

송영복 권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선교 갈 때마다 선교 주변과 기후 등을 염려하지만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이번에도 경험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국가이고 소수인이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인은 적고 대부분 카톨릭 신자라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단으로서, 박해받으면서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벽을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한 교회와 가정교회 두 곳에서 말씀 전

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은 정말 반석 위에 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소견을 말할 때 “스리랑카에 종교는 많지만,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는 종교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듯이 증언할 때, 그분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그마한 가정교회지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한 행동으로 본을 보이심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곳 스리랑카도 우리나라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되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를 상상해보고 목숨을 주님께 맡기며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더욱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구자들 마음을 헤아려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교하며 기도할 수 있음은 부부 선교사, 현지인 통역 전도사의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교회마다 세 분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이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통역할 때 모두 감사함으로 집중하는 것에 감동이 되어 더욱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기도로 인도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특별히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과 기도덕에 더욱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선교였습니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더욱 은혜롭고, 감사했습니

다. 저희 팀원 모두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복음 전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페라데미야 지역 성서침례교회/ 느헤미야 기도회

오준분 권사

할렐루야! 7박 8일간의 스리랑카 느헤미야 중보기도 선교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의 선교는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자랄까 염려하며 돌아왔던 일들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물주시고 기르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에서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자기 나라 언어로 쓰인 『복음의 영광』 책자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선교사의 인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통역 전도사의 통역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그곳의 성도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리랑카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분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까? 하는 모든 우려를 씻었습니다. 그분들의 반듯한 신앙심을 본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8개월 만에 잃고 하나님은 없다고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야 돌아왔다고 회개하는 젊은 성도도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성도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 하루에 5~6시간씩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처럼 우리 팀원들은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나를 돌이켜 회개하였으며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다시 결단하는 기도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사역으로 그곳의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라고 외치시며 말씀 선포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김희선 권사

우리를 사랑하사 스리랑카 선교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미 스리랑카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땅 위에 복음의 비밀이 거침없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19명의 팀원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역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황윤희 권사

먼저 은혜 가운데 나의 첫 선교인 스리랑카 캔디 느헤미야 기도 선교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작년 60기 권사피택자 교육을 받으면서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올해 중보기도 교육을 받고, 3월 10기 중보기도 사역자로 첫 기도 사역을 시작한 날, 단기선교 요청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를 잘 못 하는 내가 기도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선교에 대한 나의 무지함과 경솔함이 있지는 않을

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한 주간 모든 예배와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께 새끼나귀를 내어드림과 같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내가 귀한 선교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하여 선교에 순종하기로 했다.

선교 훈련을 시작한 지 며칠 후 새벽에 심한 두통으로 병원 응급실로 갔고, 독감이 1달 이상 계속되었다. 선교지 스리랑카 캔디의 현지 상황도 고온다습하여 비, 거머리, 땀기 모기와 땀기열의 유행 등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다. 개인적으로 선교팀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도와 함께, 육신의 연약함으로 5가지나 되는 약과, 생수 10병, 땀기 모기를 막을 무장을 준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이였다. 하루에 한 번씩 먹던 두통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고, 땀기 모기를 막기 위해 완전무장한 옷차림 때문에 더위를 견디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선교 기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를 주셔서 땀기 모기도 막아주셨고, 거머리는 보지도 못했다.

방문한 교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어 오히려 선교하러 간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다. 우상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심어두신 사역자들이 휩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땅에

희망이 있음을 보았다.

선교사님들의 인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열방을 향한 느헤미야 기도사역은 현지 교회뿐 아니라, 선교로 섬기러 간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 선교팀 또한 선교사님들의 기도사역과 현지 교회들에 큰 힘이 되었다. 통역 전도사님의 통역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었다.

사역지 교회들이 꺾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굳게 설 수 있고, 크루넬라 지역 순복음교회 목사님, 람부칸나 지역 라이트하우스 교회 목사님, 페라데니아 지역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자가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며, 스리랑카 땅의 영혼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기도하며 부부 선교사님의 느헤미야 기도사역과 통역 전도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힘주시길 기도한다.

느헤미야 기도 선교사역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보고 경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무엇보다 중보기도팀의 기도의 능력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팀장님과 여러 섬김에 감사하고, 아침 경건의 시간과 사역 평가회를 인도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팀에 의지가 되어주신 강성은 목사님, 홍명주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선교팀과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

다. 무엇보다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팀원들의 모든 기도예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다음을 기대하게 하심 역시 감사드린다.

김미연 권사

이번 선교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가는 선교로, 중보기도부의 느헤미야 기도사역으로 가게 되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노방전도, 미용사역, 어린이 사역은 많이 해봤지만 기도사역은 처음이라 솔직히 많이 부담되고 주저했었다.

느헤미야 기도사역을 어떻게 하려는지 막막하고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현지교회 선교사님들의 느헤미야 기도사역에 참여하며 많은 긍금증이 풀렸고 스리랑카의 젊은 청년들, 사역자들, 현지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 걱정과 달리 가정교회에서 느헤미야 기도사역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성장하여 스리랑카 전역으로 들끓처럼 번져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사역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나를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 스리랑카의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왔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린다.

김보옥 권사

19명의 팀원이 5월 31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6월 1일 콜롬보에 도착하여 캔디 지역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6월 2일 스리랑카에도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잘 지어진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진행으로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영광』 책자를 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스리랑카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과 충만한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 우상으로 덮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음 이틀간 가정교회의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뜨겁게 찬양하는지 이들의 성령 충만함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들은 1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박재경 권사

사역 첫날, 아침 경건회 때 강 목사님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들었다. 무너진 성벽재건과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로 세우기를 갈망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그 당시 헌신하지 않은 귀족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힘과 은혜 주셔서 믿

음으로 감당하며 쓰임 받는 느헤미야에 대해 들었다.

스리랑카에도 아담하고 든든한 AOG (Assembly of GOD)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다.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성벽재건을 허락받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였다.

나는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뜨여 기도회에 집중했다. 더운 날씨와 긴 시간에도, 말씀 묵상하고 은혜 나누며 기도하니 우리가 더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기도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말씀에 힘입어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린다.

2, 3번째 가정교회를 통한 사역에서, 한때 동자승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사역자들의 간증과 나눔으로 복음적으로 매우 열악한 스리랑카에도 소망과 빛이 있음을 확신한다. 특히 우리 교회 외선부에서 복음 듣고 귀국하여 (충현교회 권사님의 후원으로) 신학을 하고 우리를 위해 수고

하신 통역 전도사님과 같은 신실한 사역자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 선교 기간에는 컨퍼런스나 작은 목회자 세미나와 같은 느낌도 들었다. 성경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문득문득 생각나며 내가 그 속에 있는 듯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모기와 찔통더위에도 나와 공동체, 현지 사역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선교 기간이었다.

10년간 복음의 씨앗을 스리랑카에 뿌리고 양육하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에 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중보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후에도 열방을 향한 선교적 존재로 나아감을 기도한다.

19명의 많은 팀원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나아가 팀장, 총무, 서기, 회계, 의료, 찬양으로 충성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섬겨주신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 스리랑카를 위한 나의 기도

① 느헤미야 기도사역을 통하여 현지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현지 교회 (AOG, 람부칸 나워, 바라데니아 교회) 들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주소서.

② 팀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진정한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와 영적 성장이 있게 하소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안화순 권사

느헤미야 기도로 스리랑카 선교 훈련 시간에 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유익하며 현지사역자에게 유익 되고 현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성도들을 존중하고 동등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했습니다. 『복음의 영광』 책자 하나 들고 느헤미야 기도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 선교사들을 만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무더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9시에 도착하여보니 70~80명의 성도가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복음의 영광』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회개의 마음이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을 서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싱할라어와 타밀어로 통역 전도사가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기도회가 무더운 날씨에 지루할 법도 한데 모두 집중하며, 그 가운데 현지 성도들의 말씀 나눔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가 정치적 부

패와 무능함과 타 종교에 대한 편견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도 있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주일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확고한 믿음을 보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전부)을 주셨기에 나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말씀 앞에 이제는 전도와 열방의 선교를 위해 관심과 사랑, 기도로 힘쓰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 그 원형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이웃사랑을 다짐해봅니다.

지도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는 넓게 쳐져 있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명의 스리랑카 느헤미야 기도 선교는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사역으로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지 사역자와 동역하며 현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렸고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기에 본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유익을 끼치는 청지기들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선교 잘 마무리할 수 있어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도 목사

님, 전도사님, 부부 선교사님, 통역 전도사님, 팀장님, 팀원 한분 한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최종란 권사

중보기도팀에서 봉사를 하던 중 권사님들의 권면으로 스리랑카 선교팀에 참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대비하여 느헤미야 선교 훈련을 통해 교육을 받게 하시고 스리랑카 현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 스리랑카 현지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느헤미야 기도를 하며 말씀과 묵상, 기도, 나눔을 통해 스리랑카 성도들이 은혜받는 모습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았습니다. 셋째 날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작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향해 눈물로 신앙고백하는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스리랑카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선교하기보다 내가 은혜받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영혼들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날로 더 하여지며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으며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옥련 권사

하나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선교였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다. 또한, 목사님 말씀처럼 4가지의 유익이 있는 선교이길 기도했다. 그리고 나를 파송한 우리 교회와 현지 영혼, 현지 교인에게 유익이 있는 선교이길 기도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잔잔하게 늘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이었다.

김선자 권사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현지 선교사역을 못 하다가 재개되어 감사했다. 선교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물론이고 교회에 유익, 선교 현지에 유익,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기도사역은 처음 해보는 사역이라 기대됐다. 사역지 교회로 가서 말씀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묵상 비슷한 사역이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듯, 내 믿음이 부서져 있음을 깨닫고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마음의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나를 깨뜨리는 첫날을 시작했다.

현지 교인들의 뜨거운 신앙에 뜨는 산골 곳곳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을 보고 스리랑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리

란 확신이 들었고 그 씨앗이 잘 자라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계속 선교로 지원과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더운 날씨에 사역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어, 사역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해본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았고 많은 인원이 하나가 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오혜옥 권사

먼저 이번 선교에 동참케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을 통하여 예전 선교와 다르게 축호·노방선교가 아닌, '기도'하는 선교라니 기대감도 있었고 그동안 나름대로 기도하던 습관이 타성에 젖어 느슨해졌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기후와 환경을 위하여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바, 도착하고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팀원 모두가 예전 선교의 경험으로 기본자세와 매 순간 주어진 사역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 기간 내내 나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과 만남도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는 분명 지난날 주님께 대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으며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십자가의 사랑이 그토록 큰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간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 더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찬양, 예배, 회개에 이어 말씀을 나누는 그곳 성도들의 깊은 믿음에 나 스스로 부끄러웠고 주님께 죄송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들을 보면서, 또 부부선교사님의 사역과 열정, 잔잔한 미소를 대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므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출국 전, 스리랑카인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스리랑카에 보내신 뜻을 알기를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팀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경숙 권사

사역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릴 일은 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하셔서 영적 홀갈이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국가로 알려졌지만, 힌두교와 무슬림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엔 불교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무슬림은 그들끼리 교류하며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현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일까 궁금했습니다. 예배나 성경공부의 기회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인들이 복음 들을 기회를 얻어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가 지도자들이 불교를 숭배하고 승려들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려 합니다.



람부칸나 지역 라이트하우스 가정교회/ 느헤미야 기도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

엮은이의 글

중보기도에 관한 모든 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꿈이 있어서 한 편씩 글을 모아 두었다. 언젠가 그 글들을 책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11차 중보 헌신작정 즈음에, 막연했던 꿈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책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중보의 감동을 고백한 분들의 진실이 훼손될까 조심스러웠다. 그 염려를 덮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어요”라고 고백해 본다.

— 홍명주 전도사

중요한 편집능력 중 하나는 문장 속 **보**이지 않게 숨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일 텐데 **기**운 빠지는 소리이지만 나는 제한된 지면에 **보**도블럭 끼워맞추 듯 글을 배열하는 것으로도 벅찼다. **부**지도 전도사님, 책자 만든 올 여름이 가끔 생각나겠지요.

— 박은하 집사

11차 중보 헌신작정이 시작된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쌓인 중보기도 체험을 모아 조출한 책으로 엮었다. 원고는 넘치고 지면은 한정되어 편집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하다. 아이디어를 주신 황경분 권사님, 김희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름 내내 꼼꼼하게 편집에 몰두한 박은하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무더위에 껴안고 살던 원고를 떠나보내고 다시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는다.

— 정연희 권사

기도밖에 없었어요

발행인 한규삼

발행일 2023. 8. 10.

발행처 충현교회 중보기도부

편집·교정 정연희 박은하

표지디자인 박채경

기도밖에 없었어요 2023.

본 책의 저작권은 충현교회 중보기도부에 있습니다.